

## 실내디자인의 미래의 전망

- Making A Better World Through Interior Design -

제3회 학술세미나가 1994년 10월 31일(월) 오후 2시~4시30분 까지 연세대학교 일관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교수이며, IDEC(Interior Design Educators Council, 미국실내디자인 교육협의회) 회장인 Dr. Jo Ann Thompson을 초청하여 「Making A Better World Through Interior Design」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들었다. IDEC 회장인 Dr. Thompson은 실내디자인이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여 미래사회에 실내디자인의 역할이 중대함을 역설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본 학회는 국제교류 활동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으며 금년 1995년 3월 29일~4월 1일 미국 NASHVILLE에서 열리는 IDEC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이연숙, 오인옥 부회장, 정유나이사, 안희영 전이사 그리고 신화경, 이선미, 이수진, 윤영선 회원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개회사

윤도근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

오늘 본 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에는 특별히 초청한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교수이며, 미국실내디자인교육협회 IDEC(Interior Design Educators Council)의 회장인 Dr. Jo Ann Thompson을 모시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학회는 그동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학술세미나를 활발히 개최해 왔으며, 그 성과도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왕성한 학술활동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학회임원들의 열성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는 국가적 이상을 높이고, 국민 생활환경을 선도해야 하는 학회로서, 오늘의 시대가 요청하는 공간예술의 창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Thompson교수의 "실내디자인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이란 특별강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의미도 큰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내디자인은 공간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학문으로서, 우리나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오늘의 사회조류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전문분야입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넓히고, 우리의 현

실에서 실내디자인학회가 나아갈 방향은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이 다 소나마 기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를 해 주실 Thompson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온 국제교류위원회의 안희영 위원장, 한혜련 부위원장, 이정미 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의장공사협회 김이현 위원장,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이창근회장과 협찬해 주신 (주)풍진이디디 조남준 사장, (주)플러스문화사 원대연 사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내디자인의 미래의 전망

- Making A Better World Through Interior Design -

Dr. Jo Ann Asher Thompson  
(워싱턴 주립대 교수)

### Jo Ann Asher Thompson의 약력

#### EDUCATION

1976-1979 The University on Missouri-Columba :  
Ph. D : Human and Environmental Sciences  
Major : Design  
Minor : Sociology

1970-1972 Iowa State University : M. A.  
Major : Applied Art : Design  
Minor : Architecture  
Minor : Housing

1967-1970 Iowa State University : B. S.  
Major : Applied Art : Design

1966-1967 The University of Northern Iowa  
Major : Art

### 서론

지난 10년간 우리 주변의 세계는 가장 눈부신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는 정보, 또 그것의 급속한 전달에 의존하는 세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거나 아주 먼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보는 즉시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에 즉시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의사 전달매체는 10년전과 아주 다르며, 나날이 변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같은 도시에서 어떤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아주 쉽고 즉각적으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우주 비행사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머지않아 전화기술은 골동품이 되고 동시에 목소리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의사전달 되는 컴퓨터 연결망과 위성중계로 대체될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 정보, 기술, 서비스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의 세계는 10년전의 세계보다 훨씬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내디자인이 과거 존재 해 오던 방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처해야 함을 암시한다.

우리가 과거 채택해 온 대부분의 운영방식은 오늘날의 지구촌과 지구경제에 맞지 않는다. 실내디자인은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창조적이고 활력을 주는 실내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제 정보와 기술의 개혁으로 인해 세계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서로의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면서 오늘날 통합세계에 맞는 방식으로 실내환경을 해석하고 사용 가능한 정보를 민감하게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실내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디자인에서 교립주의와 차별주의는 오늘날 새 시대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생존할 수도 없다.

우리는 끊임없는 새로운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구자원을 파로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을 무시하기는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실내디자인과 건축디자인 커뮤니티는 자연환경과 제한된 자연자원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의 선물과 자연자원의 풍부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오늘날의 디자인 커뮤니티가 받는 도전은 우리의 신체적 욕구뿐 아니라 정신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자연자원을 보호, 고려하는 지능화된 실내환경을 창조함으로써, 인간 및 자연자원 모두를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

### 인텔리전트 실내(사용자와 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내)의 창조

인텔리전트 실내란 무엇인가? 인텔리전트 실내는 디자인 과정에 우리 주변의 변화하는 세계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내이다. 인텔리전트 실내는 자연자원의 지속성, 실내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작업하는 사람의 건강, 안정 및 복지 그리고 사람과 장소, 사물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화와 같은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한다.

실내디자이너들은 우리의 인접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처리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독특한 이해력과 책임감은 실내디자이너에게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Perspective잡지의 편집자인 캐시 프레이(Kathy Pray)는 이러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공간 계획에 사용하는 원리들은 인생을 설계하는 원리와 같으며, 이런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실내디자이너는 훈련을 받은 문제해결자이며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이다. 실내디자이너가 자기의 역할을 보다 잘 해내기 위해 보다 예리한 눈으로 지구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관찰한다면 지구를 위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느낄 수 있다. 소멸하는 지구자원, 배고프고 집이 없는 사람, AIDS에 걸린 사람 등이 모든 문제는 너무나 거대해서 다 이해하기 어려우나 실내디자이너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만큼 보아야 한다. 이 문제들은 피하려 노력해도 피해지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등을 돌린다고 이것이 사라지는 않는다.」

무절제한 디자인은 이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은 실내디자이너들에게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하나의 도전이다. 실내디자이너는 더 이상 사회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여유있는 고객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에만 만족할 수 없으며 이것으로 인한 보다 공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제 자연환경 중에 존재

하는 위험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실내환경을 계속 디자인할 수 없다. 실내디자이너는 사람들의 욕구를 민감하게 해결하는 실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실내를 창조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면 세계가 직면하는 문제를 심화시키게 될 뿐이다. 실내디자이너는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내를 디자인함으로써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 실내디자인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의 효과

만약 실내디자이너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수적인 교육, 지식,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해결해야 하는 세상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점은 디자이너가 행하는 모든 것, 디자이너가 구체화하는 모든 것 그리고 디자이너가 창조하는 모든 것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철학의 예들이 많이 있다. 세계의 디자이너들은 실내디자인을 통하여 현재와는 다른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간다. AIDS환자를 위한 200여채의 집들과 치료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를 들어 보자. 실내디자인 조직, 지역네트워크, 그리고 DIFFA나, Philanthropy by Design(잔존물 처리와 공익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단체)같은 기관들의 전문적인 활동, 디자인 결과물과 디자인에 걸린 시간,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 등이 AIDS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가족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Tetlow, 1993). 워싱턴 주립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 과정 연구에서는 AIDS 환자와 간병인을 지원하는데 실내환경 디자인의 제반측면중 어떤 측면이 가장 중요한가를 규명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중의 하나는 무주택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무주택자들 중 여성과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거처할 주택이 없다는 것이 개인의 자존심과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실내 디자인 해결안에 통합시킬 수 있는 실증적인 명백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려는 시도에서 워싱턴 주립대학은 태평양 북서해안

지역의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세가지 유형의 거처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내환경측면이 밝혀졌다. 즉 이러한 실내디자인 측면을 개선시킨다면 무주택 여성과 아동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실내디자인 개념은 1)안정성 2)프라이버시 3)개인 수납공간이었다(Robales, 1994).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The Hanover Principles; Design for Sustainability의 저자인 William McDonough에 따르면,

「디자인에서 지속성이란 문제는 단지 특정 시간과 장소에 대해 순응하는 문제 이상이다. 그것은 디자인 작업을 시간과 공간속에서 보다 넓은 상황의 일부로서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에 순응하는 특성을 말한다.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서 생활한다. 건축물을 단지 삶의 장소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인간과 자연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속성은 천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있는 디자인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하고 대처해서 사용하는 디자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실내디자이너가 이러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줌에 따라 산업체는 지속성있는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실내디자인을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측면은 실내환경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것이다. 실내디자이너는 디자인시 공기의 질을 조절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락한 실내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GREEN"디자인은 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깨끗한 공기를 유지함으로써 고용인들의 의료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고용인 병가 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설비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정보가 많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디자이너의 창조적 과정은 더욱 가치있으며 그들은 고객에게 더 가치있는 삶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Haworth, 1993).

또 다른 예를 들면, 디자이너는 실내환경에 차별적 디자인이 아닌 보편적인 디자인 원리

를 적용하는 환경을 창조함으로써 일반적인 환경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특정 대상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보편적인 디자인은 일반 디자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들로 이루어지지만 실내디자이너는 이를 통해 의존적인 단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중 하나이다.

Work station회사의 사장인 Deborah Kearney는 장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실내를 창조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의 열등한 적응력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실내디자인을 통한 보다 나은 세계의 창조

디자인이 잘된 실내환경을 통해서 세상은 보다 나은 삶의 장소로 만들어지며, 여기에

살고 있는 인간생활의 질도 향상된다. 잘 디자인된 실내공간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예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무주택자, 노인, 장애인, 환자를 위한 실내환경...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기능적인 실내환경...지속성 있고, 재활용되는 재료를 사용한 실내환경...인간의 요구에 민감하고 정서를 보호하며 창조적 영감을 주며 개인과 사회의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내환경 등이 있다.

질적인 생활을 위한 실내디자인의 기본적인 특성은 실내디자인 교육자, 실무자, 산업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Polsky포럼에서 제시된 "2010년의 실내디자인 전문직의 전망"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미래 실내디자이너의 사명을 통해 실내디자인의 전망을 파악할 수 있다.

「실내디자인은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잘 파악하고 끊임없이 분

석하는 과정을 통해 인류복지에 공헌한다.

...

실내디자인은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유익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실내디자인은 인간의 삶에 그리고 삶이 펼쳐지는 환경의 창조에 긍정적인 공헌을 한다....실내디자인은 필수적이며 인간생활의 질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실내디자인은 전세계적인 문제이고, 지도력이 요구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도와준다....실내디자인은 인간생활과 생활의 장에 기여한다....실내디자인은 필수적이고 본질적이며, 인간생활의 질과 가치를 향상시킨다.」

